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예산 확보 전력투구”

김 지사, “연말 도정 마무리·내년 업무준비 철저” 당부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총력 대응도 재강조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지난 9월 조직개편 인사가 6급 이하 직원까지 완료된 만큼 올해 도정 현안 및 미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정점 정리 및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도 실국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8기 도정운영방향 및 핵심 전략 도지사 공약 국가정책 등을 반영해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연초부터 공백 없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도 미리 정리해서 집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은 2023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주요사업 대응계획, 각종 공모 대응 등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일일보고 체계, 서울 상주반 운영 및 실국간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상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2월 2일 국회 예산안 통

과 법정기일까지 예산해 보편 다음주부터는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도지사부터 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투구 하겠다"며, "국가예산 확보에 전 실국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을 재강조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응도 선제적이고 과한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 안전과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삶과 민생의 관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책을 대비해야 한다"며, "도내에서도 순창 신라계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면 가금농가 시설 및 방역점검, 정밀검사 등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대주전자재료(주) 새만금국가산단 투자협약식

2022. 11. 11(금) 10:00 / 군산 은파팰리스 호텔
대주전자재료(주)·새만금개발청·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



지난 11일 군산 은파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주전자재료(주) 새만금국가산단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수 새만금산업단지 사업계획부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임일지 대주전자재료(주) 대표이사,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임준 군산시장 순)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새만금에 유치

도-새만금청-군산시-농어촌공, 대주전자재료와 투자협약
국가산단에 2045억 투자... 내년 공장 착공 191명 신규 채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 금지타입에 또 한번 성공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대주전자재료(주)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김임준 군산시장, 박승수 새만금산업단지 사업계획부장, 임일지 대주전자재료(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주전자재료(주)는 2026년까지 총 20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단(6공구) 18만7,000㎡ 용지에 2023년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91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주전자재료(주)는 1981년에 설립된 전자 부품용 소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2019년부터 이차전지용 실리콘계 음극재를 상용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새만금에 건설하는 제3공장은 이라

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품 대부분을 이차전지 핵심 시장인 유럽·북미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 대주전자재료(주)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항만·공항·도로 등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주전자재료(주)의 대규모 투자 소식은 이차전지 소재분야 생산능력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예정이다. 임일지 대주전자재료(주) 대표이사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상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투자로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과 폐배터리 자원순환 사업 등을 연계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것이다"라면서,

"대주전자재료(주)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새만금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소재 유망기업인 대주전자재료(주)의 새만금 산단 신규공장 투자를 결정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예정 중으로 이들 기업의 투자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새만금 지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최근 (주)보비엘에스(BLS), 성일하이텍(주), (주)엔드디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기자·군산=김관문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 주세요.

푸르밀 사업 지속 결정 도, 직송능가 관리 집중

노사 합의로 사업종료 철회

전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제품업체 푸르밀이 기존의 사업 종료를 철회하고 긴급안을 통해 사업을 재개한다. 앞서 푸르밀은 그동안 지속되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사업 종료를 결정했고 이에 푸르밀에 납유하는 도내 낙농기는 매일 생산되는 우유 납유처를 상실하게 된 물류 전주공장 근로자, 운송업체, 푸르밀 판매점 등은 고용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푸르밀 노사는 근로자 30%를 감축하는 대신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노사가 합의를 이룬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히 정상화돼 도내 낙농기가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내 항토기업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푸르밀 기업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낙농진흥회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쿼터매입시 용자 지원 등 직송능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건강 증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16일 국회서 보건·복지 연계 방안 토론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회도서관에서 '치유농업과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오는 1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인 농촌진흥청의 정책·연구·의의실,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최하며, 치유농업과 보건복지 전문가, 관계자 등 80명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비헤닝인 대학 Jan Hasink 박사의 네덜란드 치유농업 현황 영상 강연,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의 치유농업 이해와 정책 방향, 김도윤 미음두레 연구소 대표의 치유농업과 정신건강 연계 활성화 방안, 송기나 드림밭 힐링팜 대표의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유농장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어 박천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 중앙치매센터 김교

현 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 삼성스카이병원 서용선 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순영 교수가 종합토론을 벌인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치유농업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해 노인과 위기청소년의 돌봄과 심신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영역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제1차(2022~2026) 종합계획을 수립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확산 기반 구축, 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 인지 건강 개선을 위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했으며, 2020년 7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증치매관리에 협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추! 전주매일 창간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러행방을 책임집니다!

장수만세

NAVER 장수군청 검색